

[정보·과학]

지경부 주최·광주일보사 후원

국가 신성장 동력 'RFID/USN 세미나'

'물류·유통 혁명' 광주서 만난다

#1 금호타이어 고성공장을 부품 운반구에 메탈태그를 부착해 각 공정단계에 설치된 리더에 의해 투입 시기 및 이동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후속작업을 시시하도록 RFID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재료 오토입 방지 및 경보 발생으로 불량률을 최소화시켰다.

#2 앞으로 한우 및 수입쇠고기 이력 관리에도 RFID가 적용된다. 이는 RFID 태그를 부착해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을 RFID 리더기를 활용해 추적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RFID 리더기와 LCD 모니터가 장착된 진열 선반에서 제품을 끌어면 RFID 태그를 인식, 화면에 제품 이력정보가 뜬다.

모든 상품에 무선 태그 등 부착 정보 감지·실시간 추적

16일 김대중 센터서 신기술 정보 제공·기술 상담회 열어

◇RFID/USN 기술, 광주서 만난다=모든 상품에 태그를 부착해 그 흐름을 실시간 추적, 생산성과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최신 기술이 RFID(무선인식)/US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다. 정부는 이 RFID/USN을 유비쿼터스 생활과 물류·유통 혁명을 이끌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신기술을 광주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한국RFID/USN협회 등이 주관, 본사가 후원하는 'RFID/USN 광주 세미나 및 기술상담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지자체의 RFID/USN 산업 육성 정책, 최신 기술 및 표준 동향, 클러스터 지원센터 서비스,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기술 도입 사례 등이 발표된다. 또 기술상담회에서는 RFID/USN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설계, 시제품 조립, 표준규격·성능·실험성 시험 등에 대해 u-IT 클러스터지원센터 전문가와의 1대

1 기술 상담을 진행, 기술 애로 및 해결방안 등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물류·유통혁명 꿈꾸는 광양만권=이날 'RFID/USN 최신 기술 및 표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재)광양만권 u-IT연구소 조병록 소장(순천대 공대 교수)은 "향후 제조·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건은 RFID/USN이다"고 강조한다. RFID/USN 기술이 산업과 생활 곳곳에서 얼마나 활용되느냐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이다.

RFID/USN 기술은 물자, 정보, 재정 등이 생산자·공급자에서부터 도·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정보를 무선인식 태그에 담아 모든 상품의 식별과 상태 파악, 감지, 추적 등에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계 스스로 고장을 진단하고 수명이 다 된 부품을 주문하는 등 진보된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다.

이 때문에 조 소장은 "RFID/USN 기술은 각종 경제 활동에 비용 절감과 함께 미래의 자원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소형 전자칩이 삽입된 태그를 사물에 부착하고 칩에 저장된 사물의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 기술을 의미한다. 미국의 월마트는 상품에 바코드 대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계산대에는 R-FID 리더를 설치하여 계산대에 고객이 들어서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비접촉식이기 때문에 바코드처럼 하나씩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사물이나 장소 등에 부착된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감지·저장·기능하여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된 네트워크기술을 말한다. USN을 통하여 빌딩 자동 제어, 항공기 구조물 안전 진단, 선박 안전 항해 기술, 자율 작동 재배 기술, 원격 의료 기술 등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조 소장은 광양만권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제조 및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연구소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연간 100여명의 고용 창출과 8천3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제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광양만권은 중소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RFID/USN 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8월 1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들어선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 지상시험용 1단 로켓. 이 로켓은 운송 관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고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a@kwangju.co.kr

나로우주센터 'KSLV-1' 무보험

<소형위성발사체>

운송·발사 전·후 등 보험 가입 안돼 안전사고 무방비

내년 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발사될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 사업이 '무보험'으로 추진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감에서 자료를 통해 "위성체를 발사할 때 보통 발사전 보험, 발사후 보험, 제3자 손해배상보험, 궤도보험에 가입하는 대 내년 국내에서 처음 발사되는 KSLV-1에는 제3자 손해배상보험만 가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실제 발사할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항공기로 김해 공항에 도착하면 육로로 부산항으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선박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동될 때까지의 안전사고에는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우리 발사체가 보험에 들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나 자체 사고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할 처지"라며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우주사업에서 보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소형위성체 발사가 세번째 연기됐는데,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발사 연기 사유가 명확치 않고 연기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자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백홍열 원장은 "원론적으로 우리의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러시아에서 자료를 받아 설계해서 제작해야 하는데 기술보호 협정이 늦어지다보니 전제적인 일정이 지연됐다"며 "내년에 반드시 발사에 성공시키겠다. 다만 의미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국가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모바일게임 업체 '인터세이브'

세계시장 공략... '도쿄 게임쇼' 참가

광주지역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인터세이브(대표 이경현)의 세계 시장 공략이 눈에 띈다.

12일 인터세이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4일간 일본 도쿄 마쿠하리メッセ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3대 게임 전시회 중 하나인 '도쿄 게임쇼'에 한국 게임개발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다.(사진)

'도쿄 게임쇼'에 전시부스를 마련한 인터세이브는 세계 유수의 게임유통사들과 1대 1 미팅을 진행, 내년 세계시장 진출 발판을 구축했다. 또오는 12월 NTT도코모·소프트뱅크 등 일본 모든 통신사에 출시되는 투나 스토리를 공개, 일본 모바일게임 유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 합작회사 '인터세이브 인터네셔널'을 설립, 동남아시아지역에 모바일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고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미국 할리우드에도 모바일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터세이브는 최근 개발한 모바일 게임 '데굴 데굴 꿀풀박사'를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에도 서비스하고 있다.

데굴데굴 꿀풀박사는 일반적인 학사 형태의 게임에서 사용되는 블록 대신 주사위를 이용한 독특한 형식의 퍼즐게임이다. 주사위 숫자 맞추기 게임이지만 주사위가 밀려들면서 주사위 눈의 수가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되는 주사위 숫자는 게임이 가능한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업 방송시장 진입 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류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완화를 꿈꾸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격론 끝에 의결 보류됐다. 특히 국회 설 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해 개정안의 올해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론수렴 여부를 둘러싼 상임위원회간 이견을 좁힐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종합 편성·보도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 기준을 자산 규모 3조 원에서 10조 원 이하로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보 TIP

SKT '주유마트 알뜰팩' 서비스

SK텔레콤은 한 달에 4천500원을 내면 매월 5천원권 SK주유소 상품권과 3천원권 홈플러스 할인권을 제공하는 '주유마트 알뜰팩'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와 함께

KTF '수험생 도우미' 서비스

KTF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한다. KTF는 하루에 한 문장씩 영어 문장을 들려주는 '영어미니', 고사성어를 알려주는 '고사성어미니'를 서비스 한다.

또 '수능대박', '파이팅'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격려 문구나 그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대기화면(위젯)에서 즐길 수 있는 '수능미니'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담은 '대학미니'도 내려받을 수 있다.

KTF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한다.

KTF는 하루에 한 문장씩 영어 문장을 들려주는 '영어미니', 고사성어를 알려주는 '고사성어미니'를 서비스 한다.

또 '수능대박', '파이팅'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격려 문구나 그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대기화면(위젯)에서 즐길 수 있는 '수능미니'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담은 '대학미니'도 내려받을 수 있다.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제일 시네마

전대후보 하미스포츠 ☎ 267-7777

1관 지구(전체)/신기전 (15세)
2관 올학교 이티 (15세)
3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4관 헬보이2-골든아미 (12세)
5관 트릭 (18세)
6관 고고70 (15세)
7관 모던보이 (12세)
8관 맘마미아 (12세)
9관 이글아이 (12세)
10관 모던보이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1544-0070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배너스토리 사무실(오전9시~오후11시)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블링킹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이글아이 (12세)
2관 영화는 영화다 (15세)/고고70 (15세)
3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4관 모던보이 (12세)
5관 신기전 (15세)/바빌론 A.D (12세)
6관 맘마미아 (12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부소 멀 호남타워주차장)

단 일정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문의 227-1960

영화보다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미가박스 구.린던아국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이글아이 (12세) 최고급관

2관 모던보이 (12세)

3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4관 뮤비 (12세)/미스 그레이트 아트리움 (12세)

5관 고고70 (15세)

6관 영화는 영화다 (15세)/고고70 (15세)/디클럽 (15세)

7관 비룡 (18세)

8관 스트리트 (12세)/모던보이 (12세)/미스 그레이트 아트리움 (12세)

9관 트릭 (18세)

* 이프리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경찰고급부과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모던보이 (12세)

2관 내친구의 사생활 (15세)

3관 영화는 영화다 (15세)/맘마미아 (12세)

4관 트릭 (18세)

5관 외톨이 (15세)/헬보이2 (12세)

6관 바빌론 A.D (12세)

7관 신기전 (15세)

8관 비룡 (18세)

9관 모던보이 (12세)

10관 신기전 (15세)

* 헬보이2 (12세)

* 맘마미아 (12세)

* 미스 그레이트 아트리움 (12세)

* 트릭 (18세)

</